

## 제3차 편집회의

지난 4월 28일 조선호텔에서 제3차 편집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훈 인하대 교수,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상무, 임성빈 LG전자 부장, 배윤상 STX 팀장, 조용우 삼성 차장 등이 참석해 지난해에 대한 리뷰 및 편집기획에 대해 논의했다.

## 제2차 이사회 운영위원회 확대회의

지난 5월 26일 롯데호텔에서는 제2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 한국광고주대회' 개최 계획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 2009년도 상반기 홍보전략 워크숍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2009년도 홍보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1주제 글로벌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 역할 재조명 및 한국소비자정책 과제(강사: 이성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제2주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정책(강사: 박광철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행정사무관); 제3주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위기관리 전략I(강사: 최석순 KBS소비자고발 기획총괄CP); 제4주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위기관리 전략II(강사: 채환규 MBC 시사교양국 불만제로 팀장) 등 총 4개 주제를 통해 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및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위기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98회 한국경제신문 초청 회원간담회

지난 6월 3일 롯데호텔에서는 한국경제신문 초청 제98회 회원간담회가 조찬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신문의 신상현 사장을 비롯한 간부진 40여 명이 참석했고 이순동 회장, 정병권 경영진 상근부회장 및 신훈 금호아시아나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 제1차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지난 6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2009년도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임위원장인 임대기 전무의 주제로 광고자율심의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광고심의의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정신문 광고계제 기업 불매운동에 대한 의견 개진

협회는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펼치고 있는 특정신문 광고계제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 매체력이 우수한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높은 광고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엄과 위상을 흔드는 광고관련 불매운동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 제27회 소비자단체장 초청 회원간담회

6월 17일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에서 제27회 소비자단체장 초청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천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임원 및 이순동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과 소비자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에 힘쓴 노고에 감사하며 전임 회장인 민병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7월 8일 YIN초청 회원간담회 예정

오는 7월 8일(수)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는 YIN 초청 제99회 회원간담회가 개최된다. 구본홍 사장을 비롯한 YIN 간부진과 회원사 광고홍보담당 임원 및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33**

## 인사동정

<승진> KT 이길주 전무

## KT 홍보실 강화문으로 이견

KT 홍보실이 통합발인 출범에 맞춰 분당에서 강화문 KT사옥으로 이전했다. 홍보실장(이길주 전무) 아래 경영홍보부문과 언론홍보부문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미디어법 관련 법안 국회 발의

지난 5월 18일 한선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미디어법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올해 말까지 방송광고시장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은 미디어법의 진입규제, 지분규제, KOBACC의 위상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삼성전자] 애니콜 캠퍼스 미션



삼성전자가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리얼 라이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드 엔터테인먼트(Branded Entertainment) 콘텐츠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애니콜 광고모델로 새롭게 발탁된 가수 손담비와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 이연호, 김현중, 김준, 김민이 출연하는 리얼 라이프 형태의 신입사원 임사기 애니콜 캠퍼스 미션'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삼성전자의 브랜드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은 새로운 유적드라마 형식의 '애니모션' (05년), '애니클럽' (05년), '애니스타' (06년), '애니랜드' (07년)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내세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성공을 거두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애니콜 캠퍼스 미션'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구성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션을 부여하는 리얼 라이프 형식을

도입하여 스타들의 꾸미지 않은 실제 신입사원 같은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한국아쿠르트] 창립 40주년, 고객 가치 창출에 힘쓸 것

1969년 5월 10일 '건강사회건설'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유산균을 연구 개발해 발효유를 생산, 판매하는 발효유 전문업체로 창업한 한국아쿠르트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한국아쿠르트는 설립초기 작은 아쿠르트로 출발해 메치니코프, 엘, 루피스 등 발효유 시장의 기능성제품 시대를 열었고, 1983년 라면사업, 1985년 음료시장에 진출하며 종합식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 1위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한국아쿠르트의 상징인 아쿠르티움이라는 1971년 47명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1만3500여 명에 이른다. 한국아쿠르트 양기락 사장은 "한국아쿠르트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객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가치를 창출해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랜덱] 10년 노하우 집약 스카이 오마주 출시



랜덱은 디자인을 강화하고 감성(사용자 환경)을 채택한 휴대폰 스카이 오마주를 출시했다. 감성 UI란 사용자와 휴대폰의 교감을 강화하는 기능.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상대방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횟수에 따라 상대방과의 친밀도가 색에서 나무까지 7단계로 표시된다. 오마주(Homage)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존경이라는 뜻으로, 지난 10년간 스카이 제품을 애용한 고객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삼성전자] 노트북 센스 Q320

삼성전자가 센스 Q320의 새 광고 '유적비디오'편을 선보였다. 이번 CP에서 미술사 레퍼 임수영이 선보이는 완벽한 퍼포먼스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 영화를 연상시킨다. 특히, 임수영의 손길에 맞춰 춤을 추며 넓은 대열로 펼쳐지는 군중들의 모습은 센스 Q320의 특징점인 16.9 화면 비율을 연상시킨다. 16.9 화면은 노트북의 새로운 트렌드